

성령의 3대 사역

(행 2:1~4, 엡 5:15~21)

玉 聖 石

(서울, 충정교회 담임목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세 가지의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을 성령의 인침, 또는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 성령 세례인데 이것은 능력, 증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의 사역으로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가는 데 꼭 필요한 성령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1. 성령의 내주(인침)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힘이 드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치르는 예배 의식, 부모의 강권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또한 수십 년간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 이들은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함을 고민해서, 결국은 “과연 내가 구원 받은 사람인가?”라는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고민들은 보다 나은 신앙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힘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고전 12:3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롬 8:9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의 증거이며,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기독교는 고백(믿음)의 종교이지, 행함(율법)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천국은 가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태어난 상태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 변화의 종교, 새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왜 변화가 없고, 능력있는 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40 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뒤따라 오는 우리들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인데 이것을 너희는 꼭 받아야 한다고, 행 1:4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으로, 성령 세례가 있음과 또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와는 다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골 2:28). 셋째, 성령 세례는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행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난 요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부여 주신 성령 세례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움에 변화되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을 받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을 체험한 자들은 평범하고,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며 정복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며,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었으며,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서로 시기, 질투하며, 용서가 없고, 이해가 없어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기까지 하는 변화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능력있고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이유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렇게 저차원적이며 능력 없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① 성령 세례를 인정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며 ②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기도, 찬양, 교제, 떡을 떼 때) ③ 말씀을 사모하며 ④ 회개 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받았는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첫째, 부끄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누구 앞에서나 증거하는 자입니다. 방언이 성령 세례의 표징이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방언을 주신 이유는 흩어진 유대인(디아스포라), 얼굴은 같으나 말이 통하지 않는 그 나라 그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있게 증거하기 위해 방언이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지체 의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성령 세례 후 거룩한 예수의 피로, 형제간에 동일하게 흐르는 흠 없고 점 없는 예수의 피로 지체 의식이 생겨납니다. 셋째, 신앙 생활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구원만을 주는 단순한 값싼 종교가 아니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지체 의식을 가지며 이 땅에서 기쁨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능력있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3. 성령 충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만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였는데 이 길만이 변화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중요한 두 가지 소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늘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내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생각하는 견해들이 많은데 이것은 엄격히 구별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으로 은사와 능력과 관계가 있고, 성령 충만은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고 받아야만 하는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될 수 없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이해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감화나 감동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격의 감화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에 집중하여 있는 상태, 그 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집중하여 있는 상태, 성령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술 취한 것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술은 우리의 지·정·의(知情意)를 무분별하게 마비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

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정·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감화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귀한 분이 지금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신 전입니다. 이 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둘째, 말씀과 깊이 관련되어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골로새서는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추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소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위로와 격려의 말들을 나눠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온전한 지성, 감정, 이성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예언도 방언도 아닙니다. 둘째, 죄와 사탄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됩니다. 셋째, 믿음을 겸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도 외면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겸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사랑을 겸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랑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알파와 오메가는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능력있고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구독안내

季刊 改革信仰
(The Reformed Faith)

1년분 2,000 원을 다음 온라인 중 송금하시고, 별도 연락(서신 또는 전화)을 주시면 출간시마다 우송해드립니다(날권은 서점에서 구입요망).

조흥은행 : 359 - 06 - 009858 우체국 : 010033 - 0028944

- 언덕위의 도시 :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이상 / 오덕교 교수
- 기독교와 실용주의 / 김성린 교수
- 한국 교회와 개혁 신앙 / 홍치모 교수
- 사실과 고증(考證)이만열 교수
- 개혁주의 신학이 서구에 미친 영향 / 이보민 교수
- 민중 신학의 '민중' 개념 평가 / 나용화 교수
- 그리스도의 얼굴(초상 사용 문제) / 고주영 선교사

- 개혁주의 신학이란? / 이근삼 교수
- 출애굽 연대 문제 / 오병세 교수
-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의 위치 / 박형용 교수
- 설교학의 과제 : 석의와 설교의 관계 / 황창기 교수
- B. B. Warfield와 성경비평주의 / 이환봉 교수
- 17세기 언약 운동사 / 서창원 석사
- 기타 설교 및 서평(도서정보) 각 수 편